

부산시립무용단 "신춘무용의 향연"

이으랴 하더면 가랴마는

(창작무용극 2막6장)



○ 주최: 부산직할시

'87 (목, 금) 2/19, 20 [오후] 4:30, 7:30

부산시민회관 대강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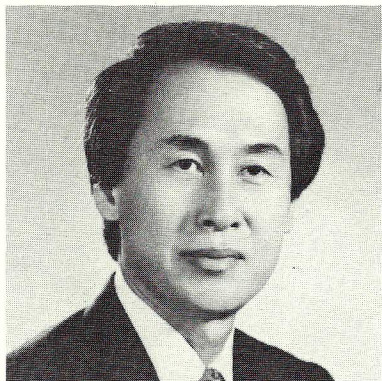
즐거리

- I. 꽃내음 짙어가는 단오절 한나절, 창포에 머리감고, 감사땀기 휘날리며 아녀자들의 그네뛰는 풍경들이 황진이 마음도 설레이게 한다. 외로운 마음을 달래노라 봄나들이에 나선 황진이는 심산 유곡에서 우연히 터벅머리 총각을 만나게 된다.
- II. 어느날 황진이 집 대문앞에서 냇을 달래는 상여행렬이 초라하게 머물고 있다. 봄나들이에서 처음 만난 황진이 생각에 상사병을 얻어 죽게된 총각의 상여다. 예사롭지 못한 스스로의 운명을 예감한 황진이는 저고리를 벗어던져 총각의 냇을 달래어 북망산으로 보낸다.
- III. 자유에 대한 의지가 솟구친 황진이는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하려는 결심을 한다. 다가오는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기생이 된 황진이는 각기 知·德·藝를 갖춘 벽계수, 서화담, 지족, 이사종과 사랑하고 이별하고 또 도전하곤 하는 파란많은 애정역정을 펼친다. 詩·唱·舞·樂으로 가득찬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살아간다.
- IV. 인생의 허무에 쫓기며 고뇌를 떨치고자 명산대천을 유람하던 황진이는 청산으로 되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. 살으리 살으리랏다. 청산에 살으리랏다. 멀위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으리랏다. 지치고 힘든 인생의 한과 기쁨을 깨닫고 새소리, 바람소리, 그 자연에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묻고자 학처럼 훨훨 날아간다.

있으라 하더면 가라마는

<p>1 幕 1 場 路 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 릿 날 • 냇이여, 냇이여 • 다가온 운명 <p>2 場 花 柳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철피는 꽃이되어 • 청산리 벽계수야 <p>3 場 敬 愛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망중운산에 어느님 오시오마는 	<p>2 幕 1 場 法 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 뇌 • 어떤 情事 • 길을 터득하고 <p>2 場 이름없는 아낙이 되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아비를 따르며 • 이별이 긴 사랑 <p>3 場 靑山別曲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있으라 하더면 가라마는 • 생의 의미 • 靑山에 살으리랏다
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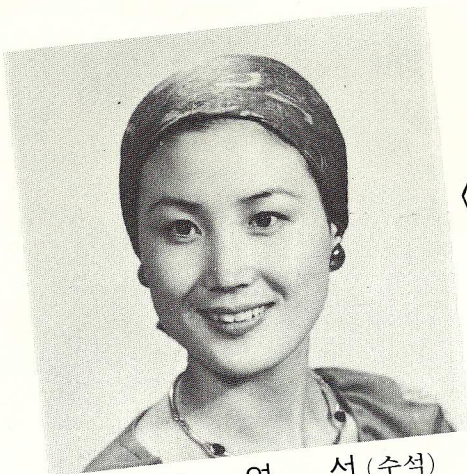
출 연 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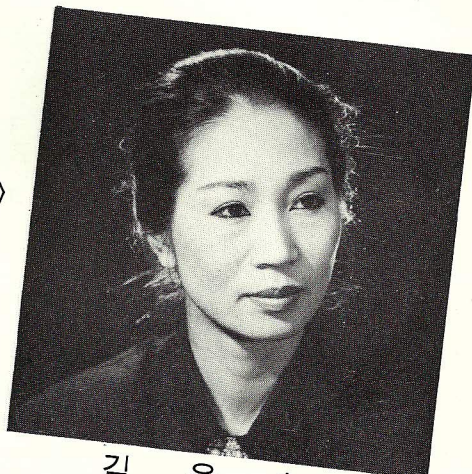
지족선사/ 송 준 영 (객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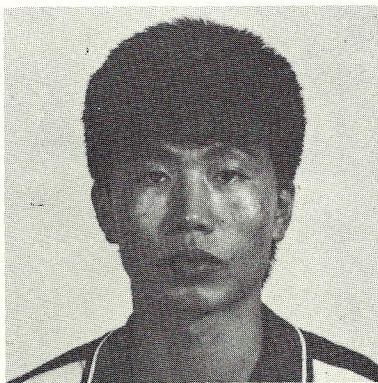
서화담/ 김 진 흥 (객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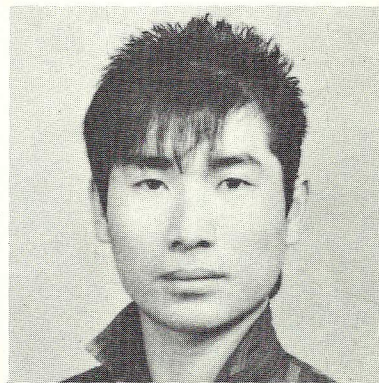
조 영 선 (수석)



김 윤 순



벽계수/ 최 동 일 (수석)



이사종/ 장 래 훈